

오토모 습지

오토모 습지(Otomo Marsh, 오토모누마)는 1675 년 완성된 55 헥타르의 인공 저수지입니다. 구보타번(현 아키타현)의 다이묘였던 사타케 요시노부(1570~1633 년)의 명으로 조성되었으며, 가뭄 시의 관개용 수원으로서 건설되었습니다. 현재 오토모 습지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옵니다.

1998 년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이 늪지는 10 월에서 3 월 사이에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유지입니다. 철새들은 늪지와 그 주변 논에서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먹습니다. **특히** 희소종을 볼 수 있는 시기에는 **지역 내와** 그 주변에서 야생 조류 애호가들과 사진가들이 모여듭니다.

철새가 가장 많을 때는 20 만 마리나 되는 쇠기러기와 1 만 마리의 백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황로, 흰죽지, 흰꼬리수리, 큰기러기, 뿔논병아리, 청머리오리 등의 철새가 언제나 찾아옵니다.

오토모 습지는 가장 깊은 곳이 2 미터가 되지 않습니다. 습지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근처의 요네시로강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.

저수지 일부에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고, 습지 전체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도 있습니다. 주차장 근처에는 벤치, 화장실, 분수가 있는 잔디밭 피크닉 공간이 있습니다.

주차장 무료 JR 히가시노시로역에서 오토모 습지(오토모누마)까지는 도보로 20 분 정도 걸립니다.